

위장병,

치유될 수 있다! 9

③ 여러가지 위장증상

위장병의 검사와 치료

1. 위의 검사

○ X선 검사

위 검사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륨용액을 마셨을 것이다. 이것은 위의 병을 진단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X선 검사를 위한 것이다. 바륨액을 마시면 위의 윤곽을 찍는데 도움이 된다.

위궤양이 있으면 바륨이 궤양의 구멍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찍혀 나온다. 암의 경우에는, 반대로 위의 내공이 암에 의해서 점령되기 때문에 바륨이 들어가지 못하고 꺾혀놓는 상태로 찍혀 나온다.

보다 확실하게 촬영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바륨과 공기 또는 탄산가스를 이용한 이중조영법(二重造影法). 이것은 흑백의 두가지 영상을 대비시키는 것으로, 위 점막의 아주 작은 변화도 발견할 수 있어 위암의 조기발견에 유용하다.

위의 X선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며칠전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술이나 담배는 피해야 하며,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 내시경 검사

위 속을 실제로 들여다보는 검사가 내시경검사(內視鏡檢査). 위 카메라와 위 화이버스콕이 있다. 위 카메라는, 관의 끝부분에 카메라가 붙어 있어서 이것으로 위의 내부를 촬영한 후 현상해 보는 것이다. 현재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보다 발전된 것이 화이버 스콕으로, 가느다란 유리 섬유(線維)를 묶어 만든것으로써, 위의 속을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다. 또한 고주파의 전류를 흘려 보냄으로써 출혈을 막는 등 획기적인 긴급 치료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방법은 지혈 이외에 종양을 제거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조기 암을 태워버리는 기술도 진전되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에 힘입어 개복수술을 하지 않아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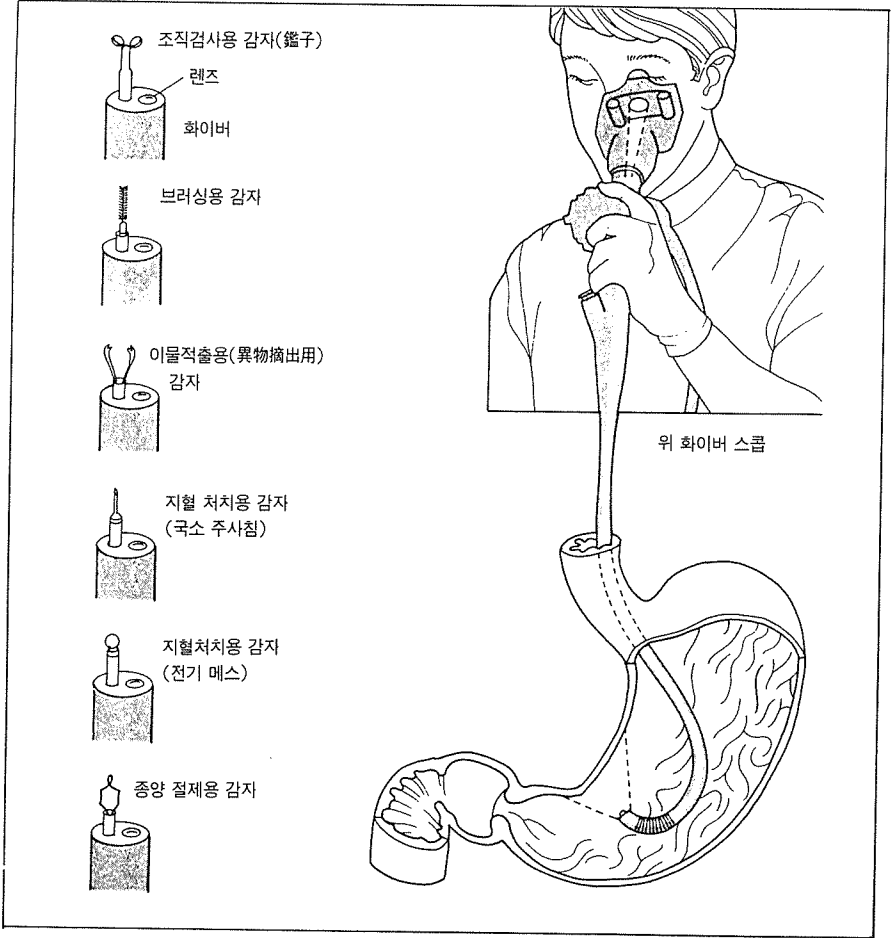
○ 그 밖의 위 검사

생검(生檢)

위 화이버 스콕으로 진단하고, 따로 가는 감자(鑑子)로 위의 조직을 떼어내어 알아보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암의 여부를 판단한다.

－ 위액검사(胃液檢査)

위 속에 가는 관을 집어넣고 약물 등으로 위를 자극시켜 위액을 분비시켜 그 상황을 진단하는 검사방법. 이 검사로 궤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한다.



2. 장 검사

○ 대장 내시경 검사

위 화이버 스코프와 같은 방법으로, 대장 질환의 진단에 특별한 진보를 보여 준 것이 이 대장 내시경 검사. 만드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며 가늘고 구부릴 수 있는 유리 섬유로 묶어서 끝부분에 라이트를 붙여준다. 작은 감자로 조직을 떼어내어 검사할 수도 있다. (조직검사용 감자, 생검)

또한 큰 고통없이 삽입할 수 있는 로프 웨이브법도 고안되었다. 이것은 우선 부드러운 실 끝에 작은 풍선을 달아서 삼킨다. 다음에 풍선에 물을 넣어 무게를 가하면 풍선은 음식물과 같이 위 소장, 대장을 통하여 항문을 나온다. 이 실을 화이버 스코프의 감자관(鑿子管)에 연결시켜 두고 내시경을 유도하면 입이나 항문을 통한 진단이 가능해 복잡하게 영킨 소장도 관찰할 수 있다.

○ 내시경적 종양 절제(종양절제술)

대장의 종양 중에는 암이 되는 것도 있다. 따라서 종양의 성질을 확인하는 동시에 치료의 의미를 포함해서 종양을 절제 적출(切際 摘出)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장 화이버 스크립의 울가미 와이어나는 감자를 사용해서 종양을 움아매고 여기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 태워냄으로써 절제하는 방법이다.

조기 암에 있어서도 이 방법으로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직장 촉진

이것은 항문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 직장의 내부를 알아보는 진단법이다.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검사를 하지 않는 병원은 오히려 믿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출혈 여부, 항문질환, 암의 발견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대장암의 60~70%가 직장암이기 때문에 이 방법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대장종양, 궤양성 대장염 등 부드러운 것은 알아내기가 어렵다. 또 하나의 장점은 남성에 있어 전립선 등 비뇨기의 질환이 동시에 진단된다는 것이다.

○ 주장(注腸) X선 검사법

대장에 X선 상(像)이 잘 나오는 조영제를 넣어 검사하는 방법이다. 주로 사용되는 것이 이중조영법.

관을 통하여 항문으로부터 직장 내에 바륨과 공기를 넣고 체위를 변형시켜 가면서 여러 각도로 촬영을 한다. 이것으로 작은 병변이나 모양, 전이 등을 알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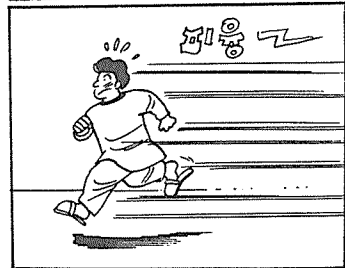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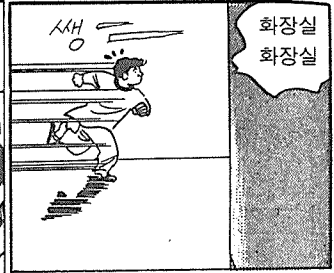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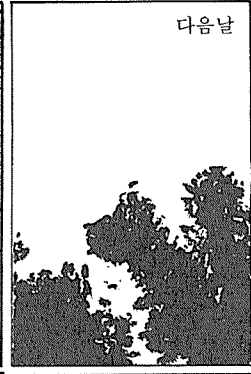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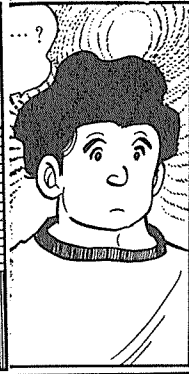
○ 변 잠혈(便 潛血)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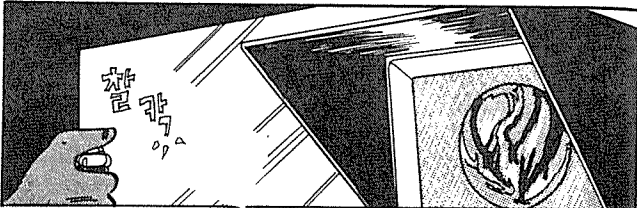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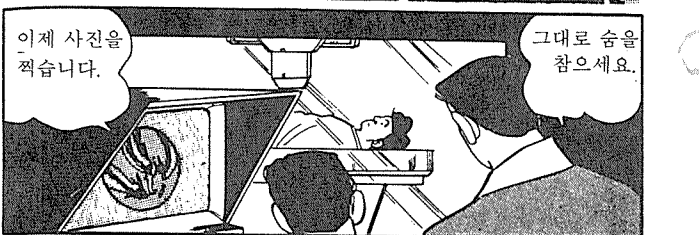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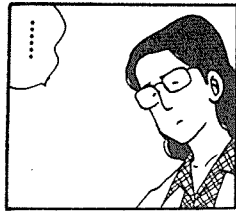
미리 분변 테스트용 슬라이드를 배포하여 여기에 장 검진 전전날, 전날, 당일 3일 간의 체변을 하도록 한다. 이것을 모아 발색(發色) 시약을 발라 검사한다.

집단 검진 등 많은 사람을 검사하는데 적합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잠혈 검사의 번거로움이 단점이다.

최근에는 면역학적 잠혈 반응이라고 해서 헤모글로빈에 특이적으로 반응시키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식사 제한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호평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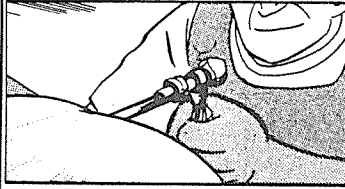








検査室



계속